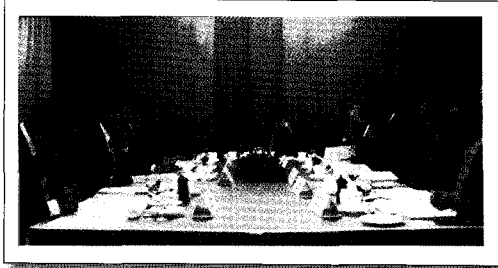


# Highlights

하이라이트



## 제14차 교육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대교협은 2011년 10월 20일(금)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협력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4차 회의에서는 대학의 유초중등 교육기부 활성화, 논술 비중 축소 및 공교육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길 한동대 총장(협력위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시우 잠신고등학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 등 협력위원 8명과 교과부 및 대교협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제35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10월 5일(수) 오후 1시부터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고등교육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우리 대학들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학 자치와 국가의 감독>의 주제발표에서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여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대학의 자치를 제한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을 역설하였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의 쟁점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물꼬를 텃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립대학들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큰 만큼 정부의 배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제14회 CEO 특강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10월 12일(수)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은행산업에 대한 이해와 국내 은행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행장은 “21 세기는 가상(Fiction), 감성(Feeling), 여성(Female)의 3F 시대”라고 말하고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간 부의 차이를 결정한다”며 “여성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72차 이사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1년 9월 29일(목)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7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관련, 2011년도 국정감사 수감 결과, 하계대학총장세미나 및 UNAI 포럼개최 결과, 국제세미나 개최 계획(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특별위원회(사학법대책위원회)의 후속조치, 특별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의 건의서 채택, 한국교양교육센터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으로의 명칭 변경 관련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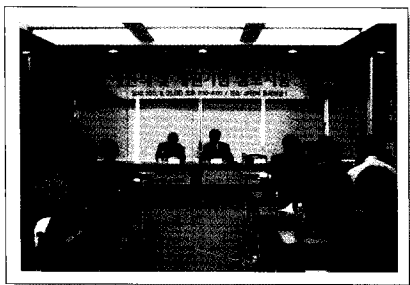
**2011년 대학자체평가 직무 연수(3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대학평가원은 2011년 9월 21일(수)부터 9월 23일(금)까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원경대학 및 대학원대학 중심의 자체평가 담당자 등 45여 명을 대상으로 2011년 대학 자체평가 3차 직무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대학 자체평가, 대학 자체평가 시행 조직구성 및 평가결과의 보고, 대학 자체평가를 통한 평가인증 기반 조성, 자체평가 국내외 사례 발표, 대학 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자체평가 기본계획과 제도적 정비, 대학 자체평가 DB 구축 및 활용 방법, 자체평가 결과의 생산적 활용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개원 심포지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8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개원식과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손동현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여분의 교육이 아니라 전공교육과 나란히 대학교육의 한 축을 이뤄야 한다”며 “현대사회가 제기하는 복합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결지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앞으로 융복합 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양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교양교육에 대한 총체적 현황 분석과 강화방안 연구, 이공계 학생을 위한 인문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양-전공교육 연계방안 연구, 학문횡단형 교양과목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